

南道の 숨결 정겨운 孤山詩歌의 산실

책의 해에 찾아가는 책의 명소 4 - 해남의 윤선도 고택과 보길도

고산 윤선도(1587~1671년)는 조선중기의 문인이자 시조작가로서 정철, 박인로와 함께 조선시대 3대 가인으로 불린다. 특히 송강 정철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고 있으니 송강이 가사문학의 대가라면 고산은 시조문학의 으뜸으로 꼽힌다. 고산의 시조문학을 평하는 말로 김수장은 「해동가요」에서 “고산의 노래는 때 묻지 않고 맑아 높으므로 우리로서는 올라갈 수 없는 만장봉”이라고 칭송하고 있고, 후대로 내려와 조운제는 「한국문학사」 ‘고산조’에서 “고산의 자연은 자연이라기보다는 약동하는 생명이고, 고산의 시조는 자연의 소리요 자연미의 울동이다”고 감탄한다.

후대의 고산의 시조문학에 대한 평가는 김사엽의 「국문학사」의 한 구절에 압축돼 있는 듯하다. “고산으로 말미암아 조선어의 미가 발견되었고, 조선어가 순화 양양했다고 본다. 송강이 이미 그 가사를 통하여 더없이 아름다움을 밝혀 놓았거니와 고산에 이르러 한결 더 깊이 넓게 되고, 깨내어 그 아련함을 천명하였다. 한문이라는 밀림 속에서 유교라는 정글 속에서 우리말을 찾기관 그 당시에 있어서 지난하다기보다 불가능에 가까운 공부이었던 것인데 대답하게도 이것을 시험해서 훌륭히 성공하였다. 여기에서도 단가에 있어서는 월계관을 고산옹에게 올려야 하겠다”고 고산의 문학적 위상을 정리한다.

출사보다 유배의 세월이 길었던 삶

이처럼 당대는 물론이고 후대의 문학인들로부터도 최고의 찬사를 아낌없이 받고 있는 고산은 「孤山遺稿」를 통해 총 80여수의 시조작품을 남기고 있다. 고산 윤선도의 빼어난 시가문학의 산실과 그의 전모를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전남 완도군 보길도와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의 고산고택과 그 곁에 있는 ‘고산유물관’이 꼽힌다.

고산 윤선도 고택과 고산유물관은 해남읍에서 대흥사로 가는 중간에 있다. “집터 뒤에는 덕음산을 두고, 앞에 案山으로 벼루봉과 바른쪽에 필봉이 자리잡고 있는 명당”으로 불리는 이 집의 사랑채는 유흥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의하면 “고산이 30년 유배 끝에 환갑이 넘어 다시 관직에 들어갔을 때 효종이 왕세자 시절 사부였던 고산에게 수원에 사랑채를 지어 하사해준 집을 훗날 여기로 옮긴” 것으로 그 당호를 ‘緣雨堂’이라한 것은 뒷산의 비자나무숲(천연기념물 241호)이 한줄기

고산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한자리에

압축해 놓고 있는 ‘고산유물관’은

고택의 옆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고산의 필적과 고산과 관계되는 문헌을

일괄하여 보물 제482호로 지정된

‘윤고산 手蹟關係文書’ 등 고산의

유물은 물론 ‘공재 윤두서 자화상’

(국보 제240호) 등 한점 훼손없이

보존된 고산家의 유물 4500여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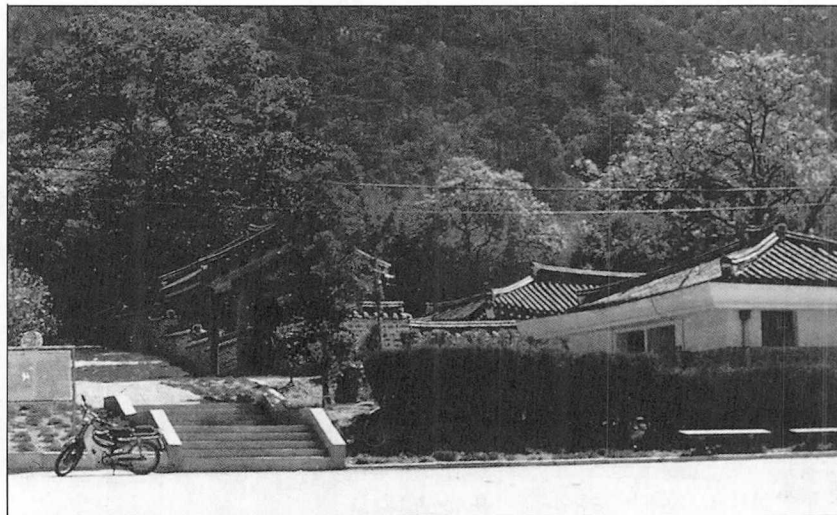
한자리에 모여져 있다.

바람에 스치면 우수수 봄비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고 해서 붙여진 운치있는 사연을 담고 있다.

여기가 해남 윤씨의 종가요 고산이 자랐던 곳이기도 하다. 고산이 태어난 곳은 해남이 아니라 서울이다. 고산의 생애와 시문학은 떼어놓고는 이해가 불가능할 만큼 밀접히 연결돼 있다. 이상보 교수(국민대 국문과)는 지난 91년 11월 ‘윤선도의 달’을 맞아 고산연구회(회장 박준규)의 주관하에 치러졌던 기념학술대회에서 「국문학사상 고산문학의 위상」이란 논문을 통해 “유배와 은둔, 학문과 출사의 생활이 거듭된” 생애를 살았던 고산의 삶과 문학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고산은 8세 되던 해 아들이 없던 큰집에 종손의 승계를 잇기 위해 입양돼 漢京의 친부모 곁을 떠나 종가가 있는 해남 고향에서 자란다. 광해군의 혼정으로 나라가 어지럽던 그의 나이 26세 때 진사시험에 합격해 관직에 나선다. 30세 때에 이이첨의 무리들이 광해군을 업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없어 상소문을 올리는데 이른바 ‘丙辰疎’이다. 그 일로 해서 양부인 유기는 관찰사의 벼슬이 떨어지고, 고산도 이듬해 함경도 경원으로 귀양살이를 가게 되었다. 이것이 出仕보다 유배의 삶이 더 길었던 20년 가까운 그의 유배생활의 첫 시작이다.

33세 되던 해 경남 기장으로 옮겨졌다가 37세 때 인조가 즉위하자 비로소 풀려났는데, 8년간이나 겨죽만 먹고 지내어 쌀밥을 보고서 언뜻 무엇인지 모를 지경이었다는 얘기가 전해진다. 그 뒤로 전남 해남에 머무는 동안 몇 차례 벼슬이 내려졌으나 마다하고 인조 6년



지난 91년 새로 지은 고산유물전시관 전경.

(1628년) 별시에 장원급제 하면서 곧바로 봉림대군과 인평대군의 사부가 되었다. 이로부터 벼슬도 차츰 올라가서 큰 뜻을 펼 듯했으나 신하들의 모함을 입어 49세 때 다시 고향으로 물러나고 만다. 이듬해 병자호란이 일어난 끝에 임금이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상을 등지고자 탐라(제주도)로 향해 가던 중 보길도를 보고 그 경치가 뛰어난에 끌려 부용동이라 이름지어 영주처로 삼았다. 그러나 그는 병자호란 때 임금께 나아가 뵈지 않고, 또 인조의 부름에 따르지 않은 죄를 입어 평안도 영덕에 2년간의 귀양살이에 보내진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금쇄동에 별장을 짓고 「산중신곡」과 「산중속신곡」 등을 지으며 65세 때까지 자연에 흠뻑 젖어 살았다. 그 무렵(그의 나이 56세 때이던 1642년) 지은 시조로는 「만홍」 6수, 「조무요」 1수, 「하우요」 2수, 「일모요」 1수, 「야심요」 1수, 「기세탄」 1수, 「오우가」 6수 등이 있다. 그리고 59세(1645년) 때는 「추야조」 1수, 「춘효흥」 1수, 「고금영」 1수, 「중반금」 1수, 「초연곡」 2수, 「파연곡」 2수를 지었다. 또 65세(1651)때 부용동에서 「어부사시사」 40수를 지으니 이는 이른바 전래해오던 ‘어부가’ 중 가장 완미한 노래가 된다.

효종 3년(1652) 66세의 나이로 성균관 사제가 되어 17년만에 서울로 불러 올라가는데, 임금은 옛스승의 은혜를 못잊어 벼슬을 내리고 가까이 두려 했으나 신하들이 꺼려하여 고산은 노환을 핑계삼아 경기도 양주에 가 정양을 한다. 그런 까닭에 이때 지은 「몽천요」 3수에는 임금에 대한 안타까운 충정이 나타나

있다. 그해 선달에 귀향하여 부용동과 금쇄동에서 자연을 즐기며 풍류생활을 누리다가 71세(1657년)에 다시 상경하나 서인들과의 싸움 끝에 또다시 함경도 삼수로 유배를 가니 그때 그의 나이 74세였다. 뒤에 전남 광양으로 옮겨졌다가 81세 때에야 8년간의 귀양에서 풀려나 부용동으로 돌아가 85세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이상보 교수는 “그는 성격이 곧고 억세었으므로 세속의 무리에게 자주 물리어 인생의 황금기를 귀양살이 20년, 은거생활 19년을 보낸 채 큰 경륜을 펴보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올곧은 정치가요, 임금의 스승이며, 뛰어난 예학자요, 명당을 찾아낸 감여가였다. 거기에 더하여 훌륭한 의원이며 가야금과 거문고를 이는 음악가였고 가장 뛰어난 자연시인이었다”고 상찬한다.

고산가의 유물 한자리에 모은 ‘고산유물관’

이같은 고산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한자리에 압축해 놓고 있는 ‘고산유물관’은 고택의 옆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는 고산의 필적과 고산과 관계되는 문헌을 일괄하여 보물 제482호로 지정된 ‘윤고산 手蹟關係文獻’ 등 고산의 유물은 물론,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국보 240호) ‘해남 윤씨 가전고좌첩’(보물 481호) ‘지정 14년 노비문서’(보물 483호) 등 400여년 가까이 한점 훼손없이 보존된 고산가의 유물 4500여점이 한자리에 모여져 있다.

윤고산의 옥필원고 중 「금쇄동기」 「산중신곡」 등이 전시돼 있는데, 특히 “내 벗이 몇인고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 야...”로 시작되는 「오우가」나



전시관에 진열돼 있는 「산중신곡」 「금쇄동기」 등 고산의 수적관계문서들. 보물 482호로 지정돼 있다.

「어부사시사」의 펼쳐진 면은 유흥준의 말처럼 “고등학교 국어책이 생각나서 정말로 반갑고, 또 힘차며 맵시있는 중세 한글 서체의 멋이 눈맛을 상큼하게” 해준다.

그러나 관람객들의 발목을 끄는 구경거리에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1633년(인조 11년) 고산의 나이 41세 때 증광향해별시에 장원급제했던 답안지를 비롯해, 고산이 봉림·인평대군의 사부시절 나라에서 하사한 물품의 물목단자를 제작해 놓은 恩賜帖, 고산이 후손들에게 종가의 관리며 재산분배·노비관리·예절문제·생활태도 등에 관해 적어남긴 忠憲 公家訓, 고산의 서찰을 모은 서찰집, 고산이 어버이를 사모하는 글을 담은 책인 永慕帖 등 고산의 유물 뿐 아니라 해남 윤씨 부녀자들의 생활을 담아 전해온 「규방 내방가사」, 임란 당시 해남 윤씨 종가에서 겪었던 사항들을 기록해 놓은 설화집인 「임진록」 등 안방여인들의 글도 있어 고산문학뿐 아니라 당시의 내방문학도 엿보게 한다.

한편, 이 유물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국보급의 그림들이다. 공재 윤두서의 자화상이나 공재의 아들 덕희, 손자인 용 등 윤씨집안 3대 화가의 그림 70여점을 모아놓은 화첩도 물론이거니와 이들 3인의 그림인 암면목객도, 탁충도, 기마인물도, 미인도, 그리고 공재가 직접 그린 조선후기(1710년) 우리나라 지도인 동국여지도, 조선후기(1712년) 일본지도인 일본여지도 등과, 기하학 및 면적산출에 관한 책인 송양휘산법, 천문에 관한 자료집인 방성도 등 회귀자료도 두루 감상할 수 있는 게 고산유물관의 특징이다.

“지형이 마치 연꽃 봉우리가 터져 피는 듯

하여 고산이 芙蓉이라 이름했다”는 보길도의 부용동에서 고산은 그의 나이 51세이던 1637년부터 1671년 여든다섯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곱차례나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13년간 머문다. 이곳에서 고산은 「어부사시사」 40수와 32편의 漢詩를 남겼으며 빼어난 안목으로 민가의 정원사상 첫손 꼽히는 조원을 꾸며놓았다.

‘보길도지’ 발견 복원작업 한창

부용동에서 고산이 주로 생활한 공간은 낙서재였다. 이 낙서재는 철저한 주자학의 전형적인 유학자로서의 그의 사상적 측면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그의 낙서재 생활은 제자들에게 강학하는 것이 본분이었다고 전해진다. 고산은 낙서재 뒤에 小隱屏을 두었는데, 이는 주자의 무이구곡에 있는 대은봉과 마주한 소은봉을 본딴 것이다. 즉, 주자가 무이산에 무이정사를 지어 은둔한 것과 같이 고산도 부용동 격자봉 밑에 낙서재를 짓고 은둔했던 것이다.

당시 조선의 선비들에게 주자의 무이구곡은 학문과 사상의 이상향이었다. 그리하여 주자와 같이 세상의 명리를 버리고 산간에 은둔하는 행동철학이 선비로서 취해야 할 가장 고귀한 일이었다. 율곡의 석담구곡이 그렇고 퇴계의 도산서원이 그렇듯이.

그러나 낙서재에서 40여분쯤 걸어내려가면 있는 세연정에서의 생활은 꽤 변화했던 것으로 기록은 전하고 있다. 세연정은 보길도 부항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640년부터 1650년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이조 전통 정원의 하나로 민간 정원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원이다. 세연정의 면적은 약 5000

여평에 이르렀다 하며 그 내부에는 회수담·세연지·혹약암·고산마총·옥소암 등 여러 유적들이 있다.

보길도 부용동 원림의 그 화려한 명성만 믿고 이곳을 찾는 사람은 다소 실망하기 십상이다. 고산이 보길도로 들어와 가장 먼저 지었다는 세연정은 방금 나무를 깎아 지은 듯 멀쭉게 서 있다. 불과 몇년 전 고산의 5대손 윤위가 1748년 보길도를 답사하고 선조인 고산의 유적을 자세히 기록한 「莆吉島識」란 기행문이 발견되어 이를 바탕으로 현재 하나씩 당시의 모습대로 복원되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노방이라는 조그만 배를 타고 선유하며 양쪽의 臺 위에서 춤추는 童童令女들의 찬란한 옷빛깔이 물에 비치는 것을 보며 즐겼다”는 세연지의 한쪽에는 인근의 주민이 만들어졌음직한 채마밭이 원림과 뒤섞여 있고,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인근의 집과 학교의 담벼락, 옆의 논밭과 연결된 여러 길들과 엉겨 있어 당시의 풍류를 그저 짐작만 해볼 뿐이다.

고산의 후기 작품 새롭게 조명

고산 윤선도의 시문을 기록한 저작으로는 「孤山遺稿」가 있다. 전부 6권 6책으로 되어 있는 이 문집의 판본은 정조가 윤선도의 공적을 기려 문집을 만들도록 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고산유물관’에는 지금도 그 목판이 보관돼 있다. 권 1에는 古詩, 律, 絶, 集古 등이 실려 있고, 권 2에는 疎, 권 3에는 疎와 書, 권 4에는 書單, 권 5에는 書, 祭文, 祝文, 條約, 序, 記, 說, 碑, 銘, 雜錄, 권 6에는 詩, 賦 등과 가사가 실려 있다.

고산연구회 박준규(전남대 국문과) 회장은 “이러한 문집의 목록들은 고산이 정치는 물론 학문·예술 전반에 걸쳐 조예가 깊었음을 보여준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경학 위주의 도학자이면서 제자백가를 두루 섭렵했고, 나아가 의학, 복서, 음양, 지리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러한 그의 박학한 면모는 후일 利用厚生의 학문을 확립한 정약용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그의 업적은 상당하지만 현재의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공헌은 한국문학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킨 문학적인 것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의 문학적 업적 가운데서도 특히 국문시가의 경우는 거의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윤선도의 문학은 크게 3기로 구분되는데, 「견회요」 「우후요」로 대표되는 초기와, 고향으로 내려와 금쇄동과 보길도에 머물며 지은 「산중신곡」 「산중속신곡」 「어부사시사」의 중기, 경기도 양주의 고산에서 「몽천요」 등을 지은 후기로 구분된다. 전기의 작품이 현실 참여가 박탈된 유배지에서 지은 것이라면 중기와 후기의 작품은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는 은거지에서 지은 것이다.

정병헌(숙대 국문과) 교수는 “윤선도의 작품경향은 공간적인 배경과, 그 공간에 처하게 된 동기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지금까지의 고산연구의 주된 경향은 그의 작품의 기교와 품격을 전제하여 ‘이상적인 절대공간’을 노래한 중기의 자연관을 상찬하는 작품을 주로 대상으로 해왔는데, 아직 그 의미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고산 문학의 본질은 오히려 그 逆의 지점, 바꾸어 말하면 전기와 후기의 작품에서 그 실마리가 발견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새로운 주장을 제기, 최근의 고산연구의 진행과정을 엿보게 한다.

“확고한 자기주관을 설정하고 세계를 치열하게 살아가고자 하였던 조선조 지식인의 한 전형이었던 윤선도는 자신의 변민과 갈등의 패적을 유려한 우리글로 남겨주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의 작품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성찰을 도모하게 하는 문학의 본질적인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다. 또한 사대부의 격조높은 미의식을 구현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질과 폭을 승화시킨 한 절정으로 우리의 앞에서 있는 것이다”는 정교수의 말은 고산문학의 요체를 가장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하겠다.

— 정혜옥 기자